

후 비결손은 외피의 결손과 다양한 정도의 심부구조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피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소엽(nasal lobule)의 미용적 재건을 위해서는 골격구조의 재건이 필요한데, 골격지지를 통해 비공과 비첨부의 섬세한 모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저자는 비부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종양 절제술후 필요에 따라 연조직 및 골격구조를 재건함으로써 특별한 합병증없이 기능적, 미용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11

안면신경초종의 수술치료

이원상 · 지장훈* · 전영명 · 박기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안면신경초종의 적절한 치료는 종물의 완전한 적출과 기능보존이라 할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자들은 1990년 3월부터 1996년 3월까지 6년동안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던 11례를 대상으로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종양의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전략에 대한 토의하고자한다.

- 1) 종양의 위치, 크기 술전 안면신경 기능은 환자의 연령과 함께 예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라 사료되었다.
- 2) 신경초종감압술과 신경절단술은 각 증례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 3) 신경초종감압술을 시행한 경우(4례)는 술후 기능이 보존 되었거나 경도의 마비가 발생하였다.

12

소타액선 종양

박윤영*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 김승태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목적: 저자들은 소타액선 종양의 임상상과 부위별 빈도, 병리조직학적 분류, 치료방법 및 병기별,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5년 및 10년 생존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5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를 방문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소타액선 종양으로 진단받은 총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생존율은 Kaplan-Meier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총 83례 중 양성 종양이 16례, 악성 종양이 67례였다. 악성 종양에서 발생 부위는 비강 및 상악동이 21례로 가장 많았고, 병기별 분류는 제 4기가 34례로 가장 많았으며 병리조직학적 분류는 선양낭성종양이 39례로 가장 많았다. 악성 종양에서 치료는 수술 및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아 31례였고, 방사선요법만 시행한 경우가 12례,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7례였다. Kaplan-Meier법에 의한 5년 생존율은 49.3%, 10년 생존율은 41.2%였으며, 치료방법에 따른 10년 생존율과 임상적 병기에 따른 10년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 소타액선 종양은 주타액선에 비해 악성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임상적 병기의 결정과 치료방법의 선택이 예후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주타액선 종양에 대한 임상, 통계학적 고찰

김명상* · 김광문 · 김영호 · 최은창
홍원표 · 홍정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1987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안·이비인후과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을 내원하여 조직학